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김아림 · 탁영란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Exploring Psycho-social Determinants to Child Neglect and Abuse among Caregivers with Young Children

Kim, Ah Rim · Tak, Young Ran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psycho-social factors regarding child neglect and abuse using the data from the 2013 Kore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Methods:** Data from a sample of 1,062 primary caregivers with young children were analyzed with the SPSS and AMOS program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parent-child attachment, and child neglect or maltreatment. **Results:** Depression, stress, and attachment had a direct influence on child neglect and abuse.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were found to play mediating roles in accounting for child neglect and abuse, explaining 12%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multi group path analysis showed that some coeffici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group of the children. For caregivers with infants, parenting stress did not predict either attachment or child maltreatment, whereas for caregivers with toddlers, depres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achment.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community-based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focused on marital relationship as well as parent-child dyads and to provide practical child care support.

Key Words: Child abuse, Depression, Caregivers, Parent-child relations, Marital relationship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학대피해아동현황보고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231건 증가한 10,0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6세 미만은 2,310건으로 23%에 달했고,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2,338명 중 약 15%가 영유아였다[1]. 성

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 및 인격과 자아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주양육자는 자녀 발달에 직접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애 최초의 환경이다[2]. 하지만 2014년 국내 아동학대의 86%가 가정 내(8,610건)에서 발생했고, 학대행위자 중 82%는 부모로(8,207건) 나타났다[1]. 양육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취약한 영유아 아동은 자기 보호와 의사표현이 한정적이라 방임 혹은 학대 피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피해의 조기발견 및

주요어: 아동 학대, 우울, 양육자,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Corresponding author: Tak, Young Ran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709, Fax: +82-2-2295-2074, E-mail: yrtak@hanyang.ac.kr

Received: Jan 29, 2016 / Revised: Mar 17, 2016 / Accepted: Mar 2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위기, 사례 관리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집단이다.

영유아의 방임 및 학대는 뇌 발달에 치명적인 외상적 경험 (traumatic experience)으로 심각한 정서, 심리, 행동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학대는 스트레스 독성 (toxic stress)으로 작용하여 뇌 화학 반응과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여 정신 및 행동 기능 문제를 유발하며, 방임의 경우 만성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거나 어떠한 특정 시기에 필요한 발달 자극이 부족하게 되어 아동 발달 지연 혹은 부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2,3]. 아동 학대와 장기적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신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 약물 중독, 자살 시도, 성병 및 무분별한 성행동 등 심각한 건강과 만성적 질병 문제 초래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4]. 자녀의 영양, 의복, 개인위생, 보호 및 건강관리와 같은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체적 방임(physical neglect), 애정과 돌봄을 소홀히 하는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감독 부재인 교육적 방임(educational neglect) 등 다양한 유형의 방임은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행동 문제, 자아탄력성 부족, 인지·정서적 발달 장애와 같은 단기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추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애착 형성 장애, 난폭성 증가, 비행과 가출 등 장기적인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5]. Berthelot 등[6]은 어린 시절 방임과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의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혼란형 애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되지 않은 외상(unresolved trauma)의 잔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및 학대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가정에 국한된 문제 아니라 아동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족 및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히 예방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심리사회적 요소와 방임 및 학대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성장기 아동의 최적의 성장 발달과 가족 건강성 증진을 도모하는 안전한 양육 환경 지원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방임 및 학대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양육자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Stith 등[7]의 메타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방임과 학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유아 부모가 우울군인 경우 자녀를 방임 할 확률이 2배 높았다[8]. 모성 우울은 영아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장애를 초래하며[9]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결정 요인이었다[10].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언어적 학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고[11], 아버지가 우울을 호소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할 확률이 우울하지 않은 아버지보다 4배 높게 보고되

었다[12]. 따라서 주양육자의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할 인자로 보인다.

또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세 번째 선행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애착을 고려할 수 있다.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 영아 간의 사회적 관계인 애착은 부모 역할 이행(transition to parenthood)에서 부모 역할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13], 아동의 인지·사회,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된 후 행동 문제와 관계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초기 영아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애착 기반 중재들은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가 검증되어 국외에서 정부 혹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다[15].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주 양육자의 우울, 부부 혹은 결혼 생활 관련 변수, 양육 스트레스를 개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시도되어왔다. 첫 번째로 주양육자의 우울과 애착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같은 부모의 정신 건강 장애는 출산 후 부모 역할 이행에서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6,17]. 산전 우울은 영아가 1세가 되었을 때의 애착 장애와 관련 있었다는 연구[18], 모성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3~5세 유아의 불안정한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19], 주 양육자의 우울 증상은 4세의 전 학령기 아동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를 종합해 볼 때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부모-자녀 애착의 선행 요인으로 우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결혼 생활 만족은 부모-자녀 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이며, 우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부모 역할로의 이행에서 부부 관계 요인은 자녀 양육 형태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의 애착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13,16], 임부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태아에 대한 애착이 높았으며[21], 어머니가 결혼 생활 갈등을 적게 경험할수록 유아의 애착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9]. 한편, 산 후 6개월에서 30개월 결혼 생활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울이 확인되었고[22], 여성의 임신 초기부터 21년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한 Najman 등[23]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질 감소는 모성의 우울 증가와 양방향적인 인과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출산은 부부의 상호작용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우울은 결혼 생활 만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 생활 만족은 부모-자녀 간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있다. 0~3세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와 3~5

연구방법

세 유아 어머니를 포함한 선행연구[19]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및 학대와 대뇌 발달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Glaser[3]가 제시하였듯이 애착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로 아동의 최적의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을 위해 고려할 부모-자녀 관계 요인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양육 스트레스, 우울, 애착은 아동 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울, 애착, 결혼 생활 만족은 다른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 학대 및 방임의 종합적인 관련성과 심리 사회적 변인들이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지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부모 역할 발달 및 실제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는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 아동 학대 및 방임의 가설적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가 영아기(0~2세), 유아기(3~5세)에 따라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적 성숙도와 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령대 별 아동 방임 및 학대 경로 모형 차이를 탐색하여 아동의 생애 주기별 최적의 성장 발달을 돕는 가족 지원 정책 방향과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국내 사회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효과적인 조기 예방 중재 전략 논의와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 가정 고위험군 선별, 조기 중재 및 건강한 가정환경과 양육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최적의 성장 발달과 가족 건강성을 도모하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 가설적 경로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증을 통해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를 예측하는 최종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 영아(0~2세), 유아(3~5세)에 따른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차이를 확인한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24]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의 경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경로분석 연구이다.

2. 연구의 개념적 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모형을 구축하였다(Figure 1). 방임 및 학대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우울[8,12] 및 양육 스트레스[7,10,11],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부모-자녀 애착[2,3,15]을 외생 변수로 포함하였다. 우울은 자녀와의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9,16-20],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10]이며, 낮은 양육 스트레스는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19,24] 및 애착은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대뇌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Glaser[3]의 연구를 기반으로 매개 변수로 양육 스트레스, 애착을 포함하였다. 결혼 생활 만족은 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13,16,19], 우울이 결혼 생활 만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22,23]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아동방임 및 학대 가설적 모형에 포함된 외생 변수는 우울,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 그리고 내생 변수에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 애착, 방임 및 학대를 포함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3.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통계 데이터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25] 자료로 2013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전국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의 주양육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가구 방문하여 진행된 것이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 11조를 근거로 매 5년마다 아동 성장환경, 발달 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2008년 이후로 2번째 실태조사이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로부터 일반 2,508가구,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 통합 관리망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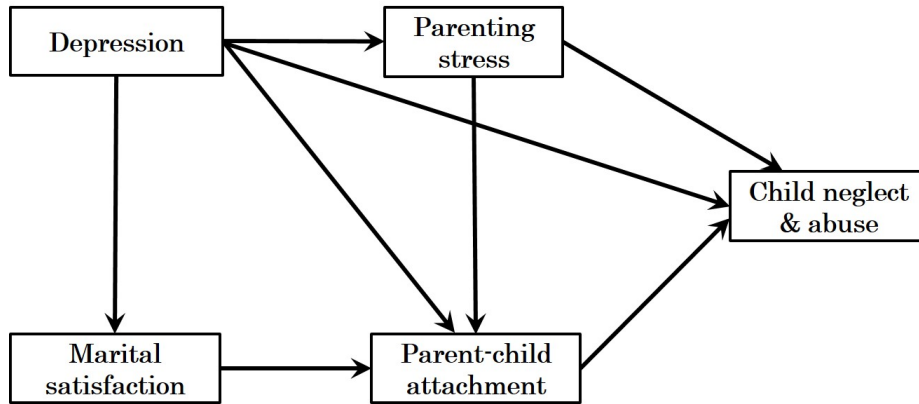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diagram.

기초수급 및 차상위 1,499가구를 포함한 총 4,007 아동 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만 9세 미만 아동은 주 양육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에 참여하였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함께 살 경우 가능하면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 양육자를 찾아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4,007 아동 가구 중 부모가 0~5세 영유아의 주 양육자이며, 배우자가 있는 사례를 추출해 1,062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Kline[27]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로 분석에서 100명은 작은 표본수, 100~200명은 중간 정도의 표본수, 200 이상을 큰 표본수로 보고 있으며, 복잡한 경로 모형 검증에 필요한 이상적인 표본 크기는 200개 이상으로 본다. 2013 아동종합실태 조사에서 영유아 아동의 양육자 약 282만 명 기준으로 학대율 3.4% 미만, 방임률이 2.5~13.5%로 조사되어,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 수를 반영하기보다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를 최대한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요 변수인 방임 및 학대 경험, 우울, 애착, 양육 스트레스, 결혼 만족 설문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지 않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062명의 자료가 경로 모형 검증에 사용되었다.

4. 측정 변수

1) 우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주양육자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11문항의 축약형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를 이용하였다. 이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마음이 슬펐다’ 등의 총 11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하여 ‘극히 드물다(1일 미만)’ 1점, ‘가끔 있었다(1~2일)’ 2점, ‘종종 있었다(3~4일)’ 3점, ‘대부분 그랬다(5일 이상)’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2) 결혼 생활 만족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결혼 생활 만족도는 캔자스 결혼 만족 측정도구(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수정·보완한 문항을 이용하여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에 ‘매우 불만족 한다’(1점), ‘불만족한 편이다’(2점), ‘만족하는 편이다’(3점), ‘매우 만족한다’(4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부모-자녀 애착

아동종합실태조사[25]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신체 접촉을 좋아한다.’, ‘서로 눈 맞춤을 한다’,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4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4) 양육 스트레스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등 5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설문조사에 반영하였다.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5) 아동방임과 학대

아동종합실태조사[25]에서 아동방임 및 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Straus 등[25]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CTSPC) 척도를 응답자 가해 경험 형태로 수정하여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방임의 경우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게 했다.’,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자녀를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주위의 물건을 던져서 아이가 맞았다.’ 등의 신체 학대 관련 5문항, ‘자녀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명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자녀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의 정서 학대 관련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13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음’(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이상’(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방임 및 학대 행위를 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 아동방임 및 학대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이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다섯째,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 학대에 대해 심리 사회적 특성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χ^2 와 함께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할 수 있는 RMSEA, TLI 및 CFI와 NFI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27].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모수 추정을 하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연령대 별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0~2세 영아기, 3~5세 유아기로 하여 다중 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 양육자인 부모 1,062명 중 어머니 991명(93.3%), 아버지 71명(6.7%)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연령대는 3세 미만 489명(46.0%), 3~5세 573명(54.0%)이었다. 가정의 특성은 일반(비빈곤) 77.5%, 차상위 11.1%, 기초 수급 11.4%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461명(43.4%), 대학 졸업 이상 596명(56.1%)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683명(64.3%), 직업이 있는 경우 362명(34.2%)이었다. 결측치는 1,062명 중 학력 0.5%, 경제활동 상태 1.5%였다.

2.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측정 변인 간 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관련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우울은 44점 만점에 16.59 ± 4.83 점, 결혼 생활 만족은 4점 만점에 3.10 ± 0.47 점, 부모-자녀 애착은 16점 만점에 14.39 ± 1.79 점, 양육 스트레스는 25점 만점에 12.60 ± 4.43 점, 아동방임과 학대는 65점 만점에 13.78 ± 2.09 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우울, 결혼 생활 만족도,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 아동방임과 학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감이 심할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낮고($r = -.27, p < .001$),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udy Variables

(N=1,062)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Parent-child attachment	Parenting stress	Child neglect & abuse	M±SD	Kurtosis	Skewness
	r (p)	r (p)	r (p)	r (p)			
Depression	-.27 ($<.001$)	-.17 ($<.001$)	.35 ($<.001$)	.28 ($<.001$)	16.59±4.83	2.27	1.30
Marital satisfaction		.16 ($<.001$)	-.13 ($<.001$)	-.13 ($<.001$)	3.10±0.47	3.15	-0.08
Parent-child attachment			-.14 ($<.001$)	-.21 ($<.001$)	14.39±1.79	-0.12	-0.81
Parenting stress				.19 ($<.001$)	12.60±4.43	-0.81	-0.12
Child neglect & abuse					13.78±2.09	3.48 (2.99 [†])	13.62 (9.12 [†])

[†] Value after log transformation.

부모-자녀 애착도가 낮고($r=-.17, p<.001$),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r=.35, p<.001$),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 횟수가 많은 것으로($r=.28, p<.001$) 나타났다.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애착도가 높고($r=.16, p<.001$),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r=-.13, p<.001$),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 횟수가 적은 것으로($r=-.13, p<.001$) 나타났다. 부모-자녀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r=-.14, p<.001$),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r=-.21, p<.001$)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이 많았다($r=.19, p<.001$).

경로 분석의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의 정규성 검정 결과, 우울,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가 왜도의 적정 기준인 절대값 3, 첨도의 기준 범위인 절대값 10 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아동방임 및 학대의 경우 변수 특성상 자료가 첨도 13.62, 왜도 3.48로 편포되어 있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 log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가설적 경로 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경로 모형을 수집된 자료가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 은 3.84 ($p=.147$), 적합지수(GFI)=.99, 비교적합지수(CFI)=.99, 표준적합지수(NFI)=.99, 비표준적합지수(TLI)=.98,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MSEA)=.0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χ^2 의 $p \geq .05$, GFI, CFI, NFI, TLI $\geq .90$, RMSEA $\leq .05$)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2) 경로 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경로 모형의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경로 도형을 나타낸 것은 Figure 2와 같다. 경로모형의 경로 모수치에서 결혼 생활 만족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beta=-.27, p<.001$)이었고,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beta=.35, p<.001$)이었다. 부모-자녀 애착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beta=-.10, p=.012$), 결혼 생활 만족($\beta=.12, p<.001$)과 양육 스트레스($\beta=-.09, p=.009$)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우울($\beta=.23, p=.006$), 양육 스트레스($\beta=.10, p=.006$)와 부모-자녀 애착($\beta=-.17, p=.020$)이었다.

3) 경로 모형의 효과 분석

전체 집단에 대한 경로 모형의 측정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직접 효과, 간접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기 위해 추정된 경로계수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우울은 결혼 생활 만족에 대해 유의한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결혼 생활 만족에 대해 7.4%를 설명했고,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양육 스트레스를 1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애착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우울,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이 중 부모-자녀 애착에 상대적으로 높은 총효과를 보였던 우울은($\beta=-.16, p=.007$) 결혼 생활 만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6, p=.012$). 이들 변수는 영유아기 아동 부모-자녀 애착을 4.8% 설명하였다. 아동방임 및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낸 것은 우울,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이었다. 이 중 우울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beta=.23, p<.001$),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beta=.06, p=.006$)와 총효과($\beta=.29, p=.0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는 아래의 4가지로 나타났다.

우울에서 결혼 생활 만족과 부모-자녀 애착을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6 (.27 \times .12 \times .17=.006)$ 이었으며, 우울에서 부모-자녀 애착을 매개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17 (.10 \times .17=.017)$ 로 나타났다. 우울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애착을 통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5 (.35 \times .09 \times .17=.005)$ 였고, 우울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35 (.35 \times .10=.035)$ 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에서 아동방임 및 학대로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간접 효과 중에서는 부모 우울이 심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아동방임 및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는 경로의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해 직접효과 외에도 부모-자녀 애착을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beta=.02, p=.007$)와 총 효과($\beta=.12, p=.007$)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만족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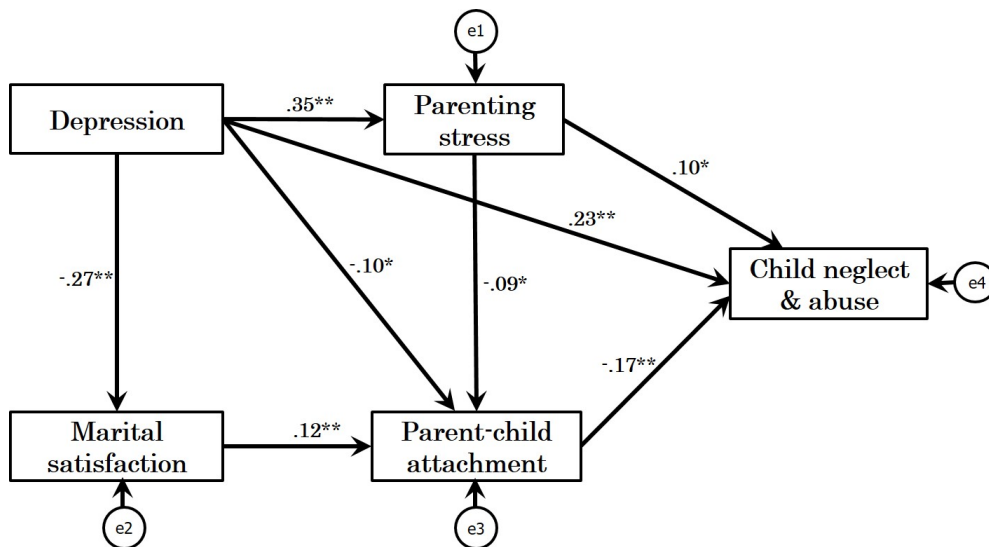


Figure 2. A path diagram of the study. Model fit statistics: $\chi^2(2)=3.84, p=.15, GFI=.99, CFI=.99, NFI=.99, TLI=.98, RMSEA=.02$ with 90% CI[.00,.07]. Solid lines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p<.01, **p<.001$); Error variances appear in small circles.

Table 2.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Path Model

(N=1,062)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β (p)	β (p)	β (p)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27 (.002)	-	-.27 (.002)	7.4
Parenting stress	Depression	.35 (.015)	-	.35 (.015)	12.4
Attachment	Depression	-.10 (.012)	-.06 (.012)	-.16 (.007)	4.8
	Marital satisfaction	.12 (.014)	-	.12 (.014)	
	Parenting stress	-.09 (.009)	-	-.09 (.009)	
Child neglect & abuse	Depression	.23 (.006)	.06 (.006)	.29 (.005)	12.0
	Marital satisfaction	-	-.02 (.013)	-.02 (.013)	
	Parenting stress	.10 (.006)	.02 (.007)	.12 (.007)	
	Attachment	-.17 (.020)	-	-.17 (.020)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모-자녀 애착을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에 간접적인 영향($\beta=-.02, p=.01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방임 및 학대에 이르는 변수 간 관계들의 설명력은 아동방임 및 학대를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연령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1) 연구모형에 대한 아동 연령대별 모형 적합도 비교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0~2세,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인 우울,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 및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가 아동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 모형과 추가적인 제약을 통해 연령집단 간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아동방임 및 학대의 경로가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을 비교하였다. 무제약 모형($\chi^2=5.24, df=4, p=.264, GFI=.99, CFI=.99, NFI=.99, TLI=.98, RMSEA=.01$)이 제약 모형($\chi^2=78.64, df=17, p<.001, GFI=.97, CFI=.84, NFI=.81, TLI=.81, RMSEA=.58$)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χ^2 차이와 CFI 값의 차이를 통한 모형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차이 검증에서 $\chi^2=73.40 (SD=13), p<.001, CFI$ 값의 차이가 .15로 기준치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28] 무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 본 연구의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아동방임 및 학대 간의 경로가 아동 연령대 별로 다르다는 무제약 모형을 선택하였다.

2) 연구 모형의 아동 연령대 별 경로계수

양육자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각 변인들 간 경로계

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영아기(0~2세)인 유아기(3~5세)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Table 3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영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 애착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beta=-.12, p=.016$), 유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우울은 부모-자녀 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p=.061$). 한편, 유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애착($\beta=-.14, p=.002$)과 아동방임 및 학대($\beta=.15,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기 아동의 부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애착($\beta=-.04, p=.442$)과 아동방임 및 학대($\beta=.03, p=.533$)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소와 아동방임 및 학대 간의 경로를 탐색하고 아동의 연령대별로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영아기(0~2세)와 유아기(3~5세)로 구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양육 환경 혹은 가족 지원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로모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 양육 스트레스, 애착이었다. 즉, 주양육자가 우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방임 및 학대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Table 3. Path Estimates of the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Age Group of Children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Infants (n=489)				Toddlers (n=573)			
		B	β	SE	CR	B	β	SE	CR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03	-.30	.00	-6.91***	-.02	-.25	.00	-6.13***
Parenting stress	Depression	.33	.36	.03	8.43***	.32	.35	.03	8.92***
Attachment	Depression	-.05	-.12	.02	-2.42*	-.03	-.08	.02	-1.87
	Marital satisfaction	.46	.12	.17	2.61**	.45	.12	.16	2.79**
	Parenting stress	-.02	-.04	.02	-0.77	-.05	-.14	.01	-3.13**
Child neglect & abuse	Depression	.00	.19	.00	4.12***	.01	.24	.00	5.91***
	Parenting stress	.00	.03	.00	0.62	.01	.15	.00	3.68***
	Attachment	-.01	-.15	.00	-3.32***	-.01	-.17	.00	-4.33***

Model fit: $\chi^2=5.24, df=4, p=.264, GFI=.99, CFI=.99, NFI=.99, TLI=.98, RMSEA=.01$

df=degree of freedom;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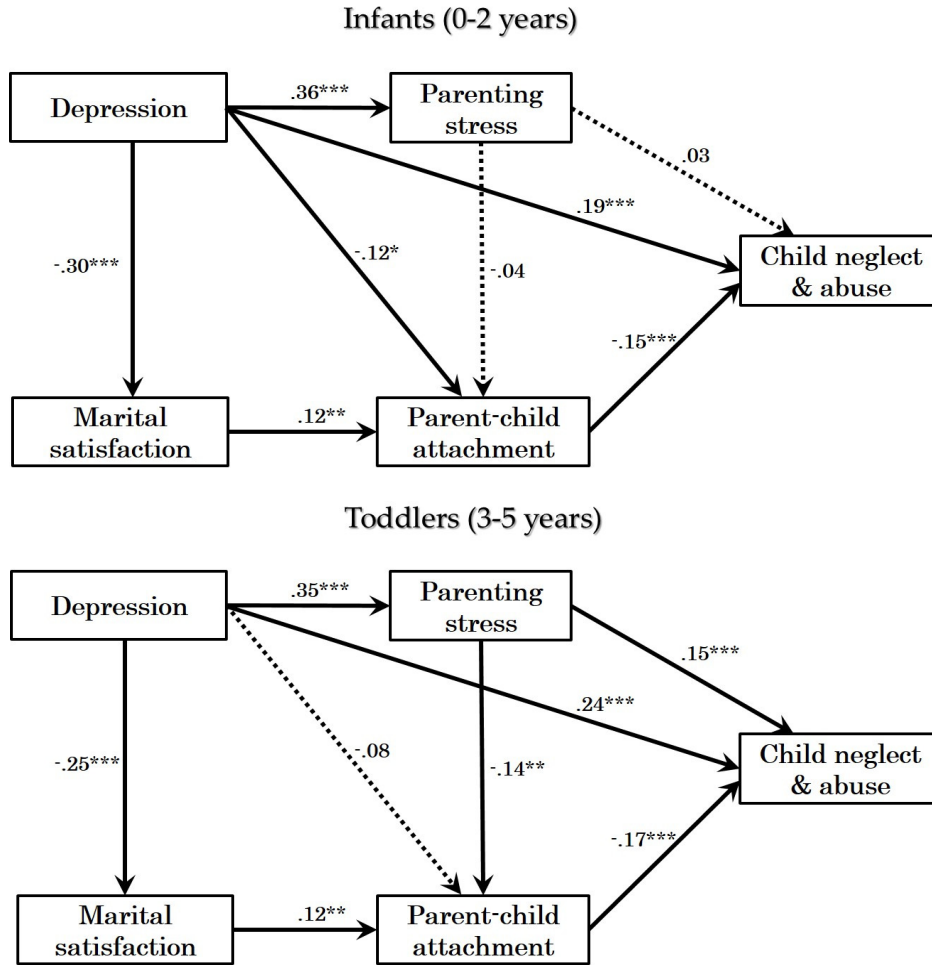


Figure 3. Path models according to age group of children. Solid lines repres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 $p < .05$, ** $p < .01$, *** $p < .001$); dashed lines represent non-significa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아동방임 및 학대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 예측 요인으로 보고된 우울[8,12], 양육 스트레스[7,10,11], 부모-자녀 애착[2,3,15] 변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은 우울이었고, 양육 스트레스, 애착, 결혼 생활 만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아동방임 및 학대를 12.0% 설명하였다. 변인들 별로 직·간접 효과 수준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자면, 먼저 우울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나타내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부모의 우울은 자녀 방임과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우울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할 확률이 4배 높으며[12], 3~5세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은 방임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우울이 없는 부모

보다 방임을 할 확률이 2배 높았다는 연구결과[8]와 유사했지만, 유아 어머니의 우울은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11]와 차이가 있다. 유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Park[11]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를 포함하며,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는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방임을 측정 변수로 반영한 도구 차이로 인해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관리 전문가는 산전 교육, 출산 후 병원 퇴원 교육, 산후 조리 센터나 영유아 보육 시설 등에서 부모를 접할 때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교육 내용에 부모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의 우울 정도를 사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전, 산후 우울을 겪는 부모가 회복하고 서로 긍정적인 심리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와 같이 취약한 집

단을 대상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지지와 양육 환경을 살피는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13]. 우울 증상이 심한 부모 중 학대 가해력과 어린 시절 학대 피해 경험으로 외상적 잔상[6]이 있는 경우에 우울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가정에서 방임 및 학대 방지 모니터링이 실시되어 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인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이 아동방임 및 학대로 가는 경로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우울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10,11,29], 출생 후 모성 우울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을 산후 3, 7, 14개월로 살펴본 종단 연구에서[29] 부모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디 스트레스, 자녀 기질과 특성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영유아 자녀를 돌보면서 오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기 쉬워 아동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민감성이 감소하거나 부적절한 상호 작용 및 양육 방식을 통해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방임 또는 학대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전, 산후 관리 기관 또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가족지지 프로그램에 부모 우울 조기 스크리닝을 포함하여 우울 고위험군에 대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와 성숙한 양육법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 때, 아동의 발달 특성 및 부모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개별적 사정을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모-자녀 애착은 우울,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로 가는 경로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애착을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는 선행연구[2,3,15] 및 3~5세 유아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와 낮은 양육 스트레스가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19]를 지지한다.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강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양육자가 아동의 요구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기반으로 즉각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때 발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14].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보건후생부의 아동국이 제시한 가이드[2]에서 보살핌과 애착(nurturing and attachment) 개념을 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며, 아동의 건강한 뇌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6가지 보호요

인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방임 및 학대와 대뇌 발달의 연관성을 고찰한 Glaser[3]에 따르면 애착은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영아 초기부터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자녀와 상호작용 시 모성 민감성 강화를 통한 부모-자녀 애착 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아동을 부모의 방임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중재와 국가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시행된 단기 애착기반 중재는 모성 민감성과 영아의 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이었다[15]. 부모-자녀 애착은 정상 만삭아 뿐 아니라 신경행동학적 발달 문제와 합병증에 취약한 미숙아 영아 부모의 역할 발달 증진에 기여하는 요인이므로[13] 의료 사각지대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한국 사회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조기 예방 중재에 대한 관심과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모-자녀 애착 증진에 초점을 두는 관계 중심적 접근은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영유아기 아동 가족의 건강성을 도모하는 중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으로 보인다. 다만 출산 후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미흡한 국내 현실에서 생애 초기 애착 강화 중재 설계 시, 방임 및 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적 방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여부 스크리닝을 이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외생 변수 중 주양육자의 결혼 생활 만족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유의한 간접 효과를 나타냈는데, 우울 및 부모-자녀 애착 간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을 호소하는 부모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자녀와의 애착 형성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자녀를 방임 혹은 학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과 결혼 생활의 질은 상호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23] 우울이 출산 후 6개월에서 30개월 사이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저해하며[22], 임부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태아에 대한 애착이 높았고[21], 파트너와의 관계가 부모-자녀 유대감 형성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 나타난 연구결과[16] 및 부부 갈등이 적게 경험할수록 유아가 안정 애착을 형성했다는 선행연구[19]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 체계가 핵가족화되며 결혼 생활 만족은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가족의 원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녀 양육 행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결혼 생활 만족은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애착 형성에 기여해 아동방임 및 학대에 예방하는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산후 우울에 취약한 시기인 부모 역할 이행 시기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상호감정을 존중, 이해, 표현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부부가 함께 우울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기반의 중재 전략 등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 모형을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연령대에 따라 방임 및 학대 경로 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0~2세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우울은 부모-자녀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3~5세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경우 해당 경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 연령에 따른 우울 및 부모-자녀 애착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추가적으로 독립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부모는 출산 후 부모 역할로의 이행을 겪으며 불확실성, 불안정, 긴장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경험하는 삶의 과도기를 보낸다는 점에서[22] 우울의 영향이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보다 더 민감하고 클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Kwon과 Bang[21]의 연구에서 임부의 우울과 모-태아 애착간 상관성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r 값이 -0.1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아동 부모의 우울이 심할수록 부모-자녀 애착이 유의하게 낮게 나와($r = -0.17$, $p < .001$) 부모의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상태가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유대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이 산전보다 산후 영아를 직접 돌보는 시기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아 부모의 경우 우울이 직접적으로 부모-자녀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우울 이외에 결혼 생활 만족,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내적, 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이 '말이나 웃음 등에 대한 반응', '신체 접촉', '눈 맞춤', '상호 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음' 4문항이었는데,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과 급속한 언어 획득으로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접촉 등 사회성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영아기 아동과의 애착을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우울과 애착 간의 관련성을 검증할 때, 3~5세 아동 발달과

특성을 반영하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차이가 났던 경로는 양육 스트레스-애착 경로로, 유아 부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애착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영아기 아동의 부모는 β 값이 -0.04 였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0~3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Noh와 Hwang[24]의 연구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 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포함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결과와 대조되었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방임 및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7,11] 본 연구에서 유아 부모의 경우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영아 부모의 경우 유의한 경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를 돌보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우울, 결혼 생활 만족, 부모-자녀 애착과 같은 심리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받는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고, 추후에는 최근 영아 애착 형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아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학대 및 방임의 외상적 경험 잔상[6]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아기 아동은 양육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부모 역할 요구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신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못한다고 느끼며, 자녀를 돌보는 데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출산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고, 양육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모 역할 발달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부모-자녀 애착이나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영아 부모와 달리 3~5세 유아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 어머니의 발달과 적응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안정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지지한다[19]. 유아는 발달 특성 상 자율성 및 주도성을 가지고 애착 대상과 분리를 감당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부모가 유아에 대해 활동성이 강하다, 까다롭다, 변덕스럽다, 기분 변화가 심하다 혹은 주위가 산만하다 등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상호 작용 어려움이 애착 형성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조기 교육 열풍 영향[19]이 자녀의 학습 기대와 성취 압박감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과중한 양육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고 본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기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산전, 산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양육 정보 공유 및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였던 경로계수는 양육 스트레스-아동방임 및 학대 경로로, 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주양육자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영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β 값이 .03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 연구[11]를 지지한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밝힌 Stith 등[7]의 메타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아동의 연령대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인구 표본 집단 및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별 반복 검증을 통해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예측 인자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전체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방임 및 학대 간의 상관 계수 r 값이 .19로 어느 정도 약한 상관성을 띄고 있어 양육 스트레스가 성장기 아동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방임과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및 학대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방임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30]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전·산후 교육, 홍보, 병원-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영유아 아동은 방임 및 학대를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부부 출산 예비 교육이 보건소 및 산부인과 등에서 제도화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심리·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어린 시절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이 있고, 미숙아출산 혹은 발달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 한부모 가정 및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에 속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 방법과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최근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장기결석아동의 현황과 안전 확인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사회정치적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신고 활성

화, 재학대 방지 등 사후 관리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성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의 방임 및 학대는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뇌신경발달에 치명적인 외상적 경험이므로,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며, 예방이 가능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측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경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아동방임 및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애착이었으며 총 효과는 우울, 양육 스트레스, 애착, 결혼 생활 만족 순으로 높았다.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 혹은 양육 스트레스와 애착, 또는 결혼 생활 만족, 애착을 통해 아동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집단 분석 결과, 우울→애착, 양육 스트레스→애착, 양육 스트레스→방임 및 학대 경로가 아동의 연령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 경로 모형을 영유아 가족 집단에 적용할 때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 및 가족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다양한 인구 표본 및 세부적인 하위 집단에 대한 반복 검증을 통해 아동의 연령대 별 방임 및 학대의 예측 인자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가 활발해 질 필요가 있다.

모자 보건 및 영유아 건강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는 영유아 부모의 아동방임 및 학대 사정 및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양육 환경 사정 뿐 아니라 양육자의 우울 스크리닝을 포함하고, 부모 교육 시 부모 정신 건강의 중요성 및 부부 간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 전략을 다루며 필요시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약 계층 대상으로 가족 지원 정책 강구 시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양육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사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성숙한 양육법 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를 돕는 자조 모임 연계와 양육 환경에 대한 지속적 추적 관찰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생애 초기부터 양육자의 민감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방문 간호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장기 아동의 발달과 가족 건강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1개년도 자료를 포함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적인 추론이 제한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위험 요인 중 사회 경제적 수준, 학력, 취업 여부, 사회적 자본 등 주양육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아동 특성 중 자녀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이차 자료분석의 한계점으로 종속 변수인 결혼생활만족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포함된 요인

으로 사용되어 결혼 생활 만족의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기에 제한이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 및 학대 가해 경험을 자가 보고식 도구로 측정하였으므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양육자가 면접관의 설문조사 당시에 진정성 있는 응답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사회적 반응 경향(social response bias)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본 연구에 반영된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α 계수만으로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2차 자료분석으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연령대 별로 타당하고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종단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Report on child abuse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4 [cited 2016 January 26]. Available from: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ILE&listid=117_11764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maltreatment on brain development. Washington DC: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19 p.
3. Glaser D.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0;41(1):97-116. <http://dx.doi.org/10.1111/1469-7610.00551>
4. Norman RE, Byambaa M, De R, Butchart A, Scott J, Vos T. Th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of chil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icine*. 2012;9(11):e1001349. <http://dx.doi.org/10.1371/journal.pmed.1001349>
5. Stoltenborgh M, Bakermans-Kranenburg MJ, van IJzendoorn MH. The neglect of child neglec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prevalence of neglec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012;48(3):345-355. <http://dx.doi.org/10.1007/s00127-012-0549-y>
6. Berthelot N, Ensink K, Bernazzani O, Normandin L, Luyten P, Fonagy P.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in abused and neglected mothers: The role of trauma-specific reflective functioning.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015;36(2):200-212. <http://dx.doi.org/10.1002/imhj.21499>
7. Stith SM, Liu T, Davies LC, Boykin EL, Alder MC, Harris JM, et al. Risk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009;14(1):13-29. <http://dx.doi.org/10.1016/j.avb.2006.03.006>
8. Lee SJ, Taylor CA, Bellamy JL. Paternal depression and risk for child neglect in father-involved families of young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012;36(5):461-469. <http://dx.doi.org/10.1016/j.chiabu.2012.04.002>
9. Kim JH, Lee JY, Sung JH. The influences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related factors on two-year-old infants' develop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yl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3;34(6):77-96. <http://dx.doi.org/10.5723/kjcs.2013.34.6.77>
10. Gray PH, Edwards DM, O'Callaghan MJ, Cuskelly M, Gibbons K.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 preterm infants-influence of development, temperament and maternal depression. *Early Human Development*. 2013;89(9):625-629. <http://dx.doi.org/10.1016/j.earlhumdev.2013.04.005>
11. Park DY. The influences of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verbal abuse of early children mot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9):4368-4379.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68>
12. Davis RN, Davis MM, Freed GL, Clark SJ. Fathers' depression related to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with 1-year-old children. *Pediatrics*. 2011;127(4):612-618. <http://dx.doi.org/10.1542/peds.2010-1779>
13. Kim AR, Tak YR. Maternal role development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graduate mothers of premature infa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4):308-320. <http://dx.doi.org/10.4069/kjwhn.2015.21.4.308>
14. Bowlby J.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Basic Books; 1988. 224 p.
15. Pillhofer M, Spangler G, Bovenschen I, Kuenster AK, Gabler S, Fallon B, et al. Pilot study of a program delivered within the regular service system in Germany: Effect of a short-term attachment-based intervention on maternal sensitivity in mothers at risk for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015;42:163-173. <http://dx.doi.org/10.1016/j.chiabu.2014.07.007>
16. Parfitt Y, Ayers S, Pike A, Jessop DC, Ford E. A prospective study of the parent-baby bond in men and women 15 months after birth.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014;32(5):441-456. <http://dx.doi.org/10.1080/02646838.2014.956301>
17. Muzik M, Bocknek EL, Broderick A, Richardson P, Rosenblum KL, Thelen K, et al. Mother-infant bonding impairment across the first 6 months postpartum: the primacy of psychopathology in women with childhood abuse and neglect historie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013;16(1):29-38. <http://dx.doi.org/10.1007/s00737-012-0312-0>
18. Hayes LJ, Goodman SH, Carlson E. Maternal antenatal depression and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at 12 month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013;15(2):133-153. <http://dx.doi.org/10.1080/14616734.2013.743256>
19. Han TS, Hwang HJ.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 related variables on preschool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Early*

- Childhood Education. 2010;30(5):99-119.
<http://dx.doi.org/10.18023/kjece.2010.30.5.005>
20. Hopkins J, Gouze KR, Lavigne JV.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ontextual factors, caregiver depression, and parenting on attachment security in preschool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013;15(2):155-173.
<http://dx.doi.org/10.1080/14616734.2013.750702>
21. Kwon MK, Bang KS. Relationship of prenatal stress and depression to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fetal grow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41(2):276-283.
<http://dx.doi.org/10.4040/jkan.2011.41.2.276>
22. Trillingsgaard T, Baucom KJW, Heyman R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2014;63(5):667-679.
<http://dx.doi.org/10.1111/fare.12089>
23. Najman JM, Khatun M, Mamun A, Clavarino A, Williams GM, Scott J, et al. Does depression experienced by mothers leads to a decline in marital quality: A 21-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013;49(1):121-132. <http://dx.doi.org/10.1007/s00127-013-0749-0>
24. Noh JY, Hwang HS.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satisfaction on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2;21(1):27-40.
<http://dx.doi.org/10.5934/kjhe.2012.21.1.27>
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Kore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2013. Policy Paper.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December. Report No.: 2013-92.
26. Straus MA, Hamby SL, Finkelhor D, Moore DW, Runyan D.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1998;22(4):249-270.
[http://dx.doi.org/10.1016/s0145-2134\(97\)00174-9](http://dx.doi.org/10.1016/s0145-2134(97)00174-9)
27. Kline R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0. 432 p.
28. Cheung GW, Rensvold RB.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02;9(2):233-255.
http://dx.doi.org/10.1207/s15328007sem0902_5
29. Thomason E, Volling BL, Flynn HA, McDonough SC, Marcus SM, Lopez JF, et al.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postpartum mothers: Bidirectional or unidirectional effec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14;37(3):406-415.
<http://dx.doi.org/10.1016/j.infbeh.2014.05.009>
30. Maguire-Jack K, Negash T. Parenting stress and child maltreatment: The buffering effect of neighborhood social servic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16;60:27-33.
<http://dx.doi.org/10.1016/j.childyouth.2015.11.016>